

이흥재의 세상만사

설을 맞으며 떠올린 몇 가지 옛이야기



논설고문

“못된 자식보다 지팡이가 낫다.” 불교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붓다는 이른 아침에 성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걸식하는 노인을 만나 물는다.

“그대는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가?”
“고타마여, 아들을 키워 며느리를 맞고 나서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는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내 그대에게 계승을 일러 줄 테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노인은 이렇게 해서 붓다로부터 시 한 수를 받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큰 소리로 읊었다. 시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네./.../ 늙은이에게는 자식보다 지팡이가 나으니/ 자식은 귀하다고 애착할 것이 아니라네/ 구부러진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 주고/ 험한 곳에선 의지처가 되며/ 가시덤불을 헤쳐 길을 가게 해 주니/ 못된 자식보다 말 없는 지팡이가 낫다네.”

비슷한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에도 나온다. 리어왕은 늙

어 세 공주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리라 결심한다. 그리고 가장 효성스러운 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한다.

말팔과 둘째 딸은 아첨하는 말로 많은 재산을 받아낸다.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막내 딸은 ‘당연히 자녀로서의 존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딱딱한 고백을 함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결국 그녀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만다.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그러나 재산을 많이 받은 두 딸은 곧바로 아버지를 냉대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왕은 궁전을 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헤맨다. 이때 부왕(父王)의 참상을 전해 듣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천리 길을 달려 온 이는 바로 막내딸이었다.

기독교의 심계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노인 심계명’은 효(孝)가 사라진 우리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첫 번째 계명(敕命) :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바로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이니 말이다. 게다가 “며느리 잘 모셔 야 집안이 화목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멋진 노년을 보내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얘기다. 어차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일 터인데 왜 무덤까지 돈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리어왕에 나오는 광대의 대사에서 찾을 수 있겠다. “남마 걸친 아비에 가는 자식들이 눈을 돌리지만, 주머니 찬 아비에겐 자식들이 친절하지...”

내친김에 옛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자. 7남매나 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 준 노인이 있었다. 이미 유산을 받아 버린 자식들은 이후 바쁘다며 아버비를 찾지 않았다. 농사 짓는 막내만이 그래도 가끔 닭백숙이나 호박죽을 썬서 가져 올뿐이었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너희 7남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며 세간까지 내 주느라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아버지에게서 혹시나 남은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온 7남매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노인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다음 달 보름에 와서 내게 보태 줄 금액을 적어 내고 돈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달라”고 말한다.

이윽고 다음 달 보름, 5형제는 왔지만 딸들은 아예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다. 세간을 가장 많이 가지고 나간 딸아들은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며 200냥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둘째는 180냥, 셋째는 300냥, 넷째는 150냥을 적어 냈다. 세간을 가장 적게 받아 나간 막내가 적어 낸 금액은 형제들 중 가장 많은 1200냥이었다.

효도를 법으로 규정해서야

얼마 후 노인이 죽자 집안 어른들은 상주들을 앉혀 놓고 유언장을 집행했다. 광목자루 다섯 개가 자식들에게 건네졌다. 딸아들의 자루에는 2000냥이 들어 있었다. 깜짝 놀랐다. 둘째는 1800냥, 셋째는 3000냥, 넷째는 1500냥, 막내는 1만2000냥을 받았다. 각자 적어 낸 금액의 10배였다. 딸년 둘은 물론 빈손이었다.

요즘 한창 인기리에 방영중인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30여 년간 두부집을 운영하며 아내 없이 3남매를 키웠는데 재산을 미리 증여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식들.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이는 이기적인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한 마지막 교육지책이었을 것이지만.

효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놀랍게도 그 나라는 중국이다. 2013년부터 중국은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한 노인권익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보고 안부를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마는 우리 또한 조만간 그리 되지 않으리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설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 혹은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안녕들 하신지?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樹欲靜而風不止),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을 기다려 주시지 않네(子欲養而親不待). 한 번 흘려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往而不追逝者年), 한 번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부모님이신 것을(去而不見者親也).

새누리 광주시당 ‘KTX 원안 운행’ 건의키로

‘수소차 선점’ 광주시 발빠른 행보

호남권 청년회의소도 “서대전 경유 반대” 성명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에 반대하는 호남지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원안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남·전북지구 회원들은 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현대성명’에서 “호남고속철 개통을 두 달여 앞두고 국토도

통부와 코레일이 갑작스럽게 서대전역 경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호남권에 거주하는 600만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고 현 정부의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

유 안이 백지화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애초 호남고속철 노선(오송-남광주-익산) 방침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문가 15명 참여 ‘허브도시 추진위’ 구성 오늘 첫 회의

광주시는 5일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분야를 선점하고 광주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대학, 연구기관, 시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하며 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운영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내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개발,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학·연·관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최근 문을 연 광주창조경제혁신센

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 주요 과제로는 ▲수소허브도시 조성 방안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과제 발굴 ▲지역 수소관련 업체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방안강구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들 헌혈 봉사

동절기 혈액수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5일 오전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467곳 주변 주차 허용

광주·전남 등 7~22일 최대 2시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7~22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곳은 연중 주차가 가능한 곳이며, 나머지 347곳은 명절을 맞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주차단체 관리요원을 배치,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행사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작년 1월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차 허용 후 이용객·매출액 모두 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임동 방면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2. 6(금) 2시/7시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3.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4. 부동산 취사(財査) 선택선택 - 돈되는 부동산 선택요령 10계명

1부 김하현 교수

- 목포대학교 법학박사
- 대법대학교 경영학 박사
- 공인중개사 총연맹 중앙위원
- 전국부동산 전문상담 운영
- 부동산 컨설파(각 신문사 및 기관)

2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컬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의를 하는 법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국 문외하사엔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